

전남도 기초연금 수백억 부담 어쩌나

새정부 시행땐 676억 추가부담… “재정 악화 가중, 전액 정부 부담해야”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보장액도 두 배로 늘린다는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전남도의 추가 예산이 최소 676억원에 이르는 등 자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재정 악화 도가 낮은 전남도로서는 큰 부담이라 는 것이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지급될 기초노령연금 사업비는 3289억원에 이른다. 이는 국비 84%에 도비 3%,

시군비 13%로 총당국이 때문에 일선 자체의 부담이 20%다.

수급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단독은 83만원 이하, 부부는 132만8000원 이하다. 저급 인원은 매년 1만1000명씩 증가해 31만4000명으로, 수급률은 85%로 예상된다.

지난해에 비해 소득인정액이 6.4% 올랐고 4월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연금액도 단독은 9만4600원에서 9만7100원으로, 부부는 15만1400원에서

15만5400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더구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해 최저 20만원을 보장하는 방안이 당선인 공약사항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자체의 부담은 더욱 늘게 됐다.

올 상반기 중으로 기초연금법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며, 2014년부터는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통합하는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의 방침대로 1인당 지원액도 기준 9만4600원에서 20만원으로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1일 광주시청 3층 회의실에서 '제8차 광주공동체 원탁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옛 전남도청 앞 '민주평화광장' 조성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광주시 제공〉

소득상위 30% 국민연금 가입자 5만~10만원 추가

65세 이상, 네 그룹으로 나눠 기초연금 차등화

새 정부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기초연금 도입으로 종전보다 매월 일정액의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데서 빛나는 중복 수령 문제와 국민연금 청실 납입자와 역차별을 받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마련됐다.

또 65세를 넘으면 연금 혜택을 주

는 원칙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던 소득 상위 30% 노인도 10만원 이하의 추가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인수하는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도입 잠정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핵심 국정과제에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을 네 그

룹으로 나눠 기초연금을 차등화한다.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기초노령연금 수령 자격으로 쓰이는 소득분포가 분류기준이다.

'노인빈곤'에 가장 취약한 첫 그룹(국민연금 미가입, 소득 하위 70%)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유지되고, 기초연금 전환 효과인 A값의 2배가 추가된다. 이때 중복수령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입기간 등을 감안한 일정액이 차감된다.

소득 상위 30%에 국민연금 가입자

앞으로는 기초연금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수령액이 늘어난다.

중복수령 논란에다 첫 그룹과 겸준 형평성 시비까지 일었던 두번째 그룹(국민연금 가입, 소득 하위 70%)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유지되고, 기초연금 전환 효과인 A값의 2배가 추가된다. 이때 중복수령 소지를 줄이기 위해 가입기간 등을 감안한 일정액이 차감된다.

소득 상위 30%에 국민연금 가입자인 세 번째 그룹도 기준의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이 받는다. 추가 월 5만~10만원 수준이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日 선진 노인시설 견학… 복지정책 큰 도움”

광주일보 해외테마연수 성황리 마무리

광주일보 주관한 선진지 장애·노인복지시설 해외 테마연수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해외 테마연수엔 전남도와 시·군청 소속 노인·장애인·아동복지 담당 공무원 1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 일까지 5·6일 일정으로 일본 구마모토·가고시마·ebi·후쿠오카 등에 위치한 장애인·노인 요양시설·장애인 직장시설 4곳과 구마모토현 청을 방문했다.

이들은 각 방문지에서 일본의 노인·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연수 직후엔 각 방문지 회의실에서 참가자들이 한데 모여 일본과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비교·

분석했다.

이들은 특히 각 방문지 시설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의 요양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책을 연구했다.

특히 구마모토현청에서 실시한 일본의 치매 정책 연수에선 참가자들이 일본의 의료체계구축·지원방식·의료수준·지역지원체계 등에 대해 심층적으로 질문해 담당 공무원들의 주목을 받았다.

구마모토현 노인 복지담당 요시다씨는 “그간 여러 나라에서 우리 현의 치매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녀갔는데, (참가자들이) 이번처럼 깊은 관심을 보인 적은 처음”이라며 “몇 년 후엔 우리가 전남의



지난달 31일 일본 아메시 노인요양시설. 시설관계자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인지능력 검사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노인복지정책을 벤치마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 허남호 노인시설 담당은 “무엇보다도 입소자들을 배려한 일

본의 복지시설을 보고 놀랐다”며 “이번 연수는 일본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일본=이종행기자 golee@

“민주평화광장, 교통 등 고려 신중 추진해야”

광주공동체 원탁회의

참석 위원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 조성될 예정인 ‘민주평화광장’과 관련, 도심 교통 혼잡문제와 구도심 상가 활성화 대책, 친환경적인 요소 등을 충분히 검토해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로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옛 도청 앞 분수대를 폭 1m 규모의 실개천으로 두르고 금남로 1가부터 3가까지 현재 5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줄인 뒤 도로중앙에 폭 1m의 실개천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는